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April 2014



집, 관계를 짓다
세계 곳곳의 프라이빗 소셜 클럽
정연두의 인간극장
Dazzling Lip Colors

Sulwhasoo



줄곧 현대인들의 회로애락을 작업에
담아온 그, 정연두가 돌아왔다!
걸그룹 크레용팝, 그리고 그를 따르는
'팝저씨'들에게 바치는 작품 '크레용팝
스페셜'(2014)의 설치 현장에 선
정연두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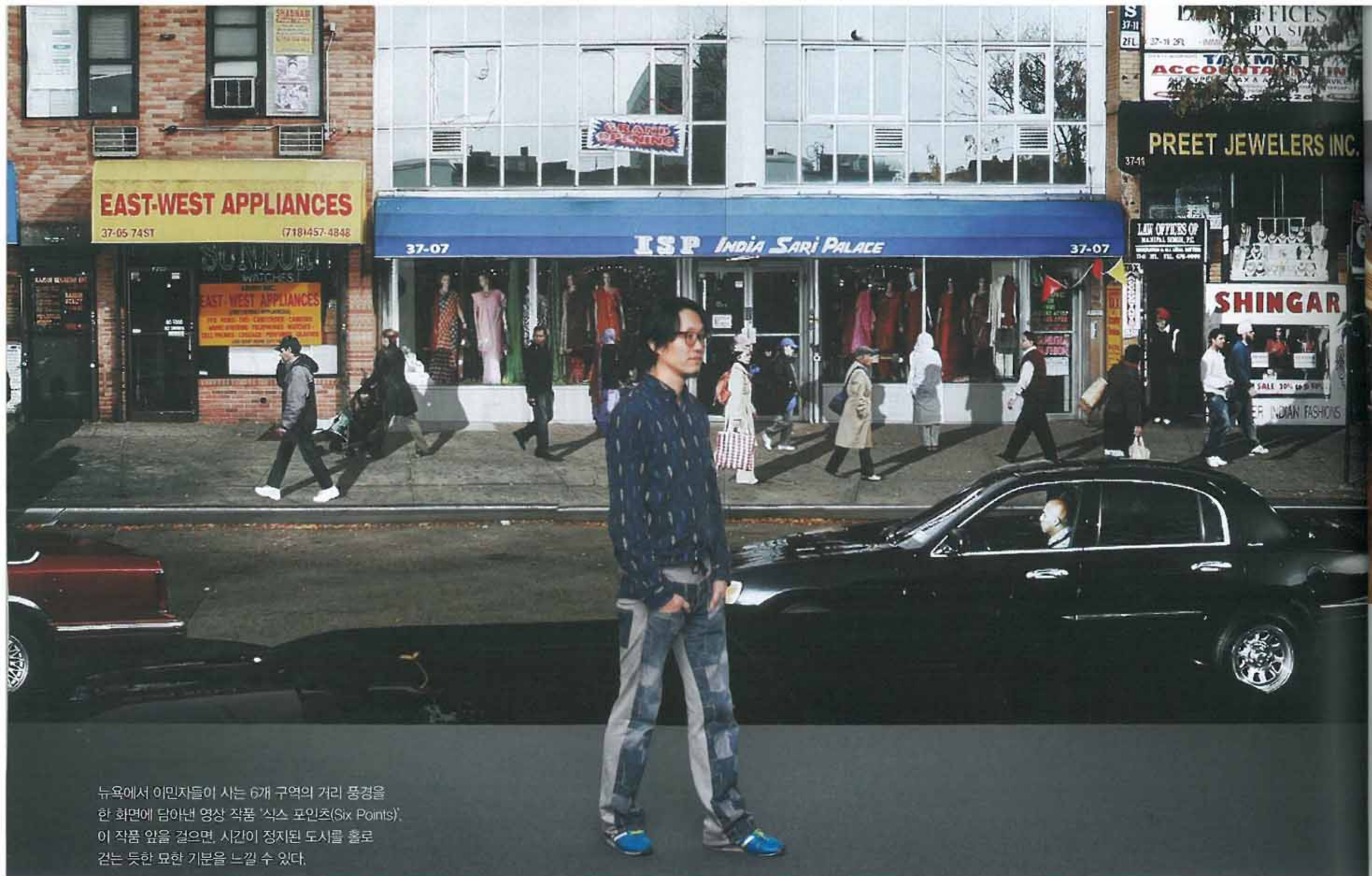
정연두의 인간극장

정연두는 풍악대의 맨 앞자리에 서는 악장이자 집념의 카메라 감독이며, 꼼꼼한 스크립터이자 진지한 마술사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열정은 그렇게 삶의 매 순간 존재하는 웃음과 눈물, 꿈과 환상, 독백과 열창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데 쓰인다. 지능적이며 냉혈한 천지인 예술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외려 사람 냄새 나는 그의 작업이 빛나는 이유.

정연두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플라토에서 여태껏 전시장 안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맛봤다. 엄청난 쇼를 암시하듯 푸르고 휘황찬란한 커튼을 열고 들어간 그 자리를 매우는 건 이른바 '팝저씨'들의 우렁찬 때창! 멸균된 화이트 큐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열정의 덩어리'를 마주했을 때의 그 당혹감이란. 하지만 금세 입꼬리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폭소가 터져 나왔고, 커튼을 빠져나올 때쯤은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기묘한 감정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애정하는 소녀들을 위해 서슴없이 '목 놓아버리는' 그들이 차라리 처연해서였을까. 혹은 그 열정이 감동적이었을까. 어쨌거나 미술관에서 이토록 즉각적으로 감정이 요동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작가 정연두와의 대면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정해진 밥그릇에 정확하게 담기는 여느 걸그룹과 달리 자기 밥을 퍼서 먹기를 갈망하는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 설 무대가 없어서 방황하지만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드는 이 아이들을 응원하는 아저씨들. 그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 해서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힐링'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사회생활에서 조직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남성들이 걸그룹을 응원하는 모습이 제게는 한국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가장들의 외침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세운 건 '크레용팝'만을 위한 무대다. 과거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한 꿈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 무대는 언제든 그들이 원할 때 설 수 있도록 실재한다. 거기에 작가가 곁들인 것이 바로 팝저씨들의 우렁찬 구호를 영상에 담은 백그라운드 뮤직. 크레용팝을 상징하는 총천연색 트레이닝복으로는 무대 옆 높은 층고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엔 '힘하게 줘다', '천연비타민 금미' 같은 글귀가 새겨진 팝저씨들의 배지를 달아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구조와 숨은 열망을 이토록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품이 있었던가.

한편, 전시장의 입구에서 만나는 또 다른 신작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그 간의 정연두를 알던 이들을 가웃거리게 할 만큼 낯설었다. 그는 지옥을 목



뉴욕에서 이민자들이 사는 6개 구역의 거리 풍경을 한 화면에 담아낸 영상 작품 '식스 포인츠(Six Points)'. 이 작품 앞을 걸으면, 시간이 정지된 도시를 홀로 걷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고, 관계를 통해서 얻는 감수성이나 에너지가 작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죽음 앞에 경건해진 인간군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현대인들의 공허함처럼 작품 속에서 도시와 그 속의 사람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전에 둔 인간들을 형상화한 로맹의 '지옥의 문'을 2014년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작품 앞에 놓인 3D 영상기기 '오클러스 리프트'를 쓰면, 그 검은 문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247명의 인간들이 실사가 되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물러나는 기막힌 장면을 목도할 수 있다. 단테에 이어 로맹, 그리고 정연두에게까지 배달된 '지옥'에 대한 해석의 바통! 일견 예술사의 명작을 성실하게 재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사실,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됐다. 작년, 도쿄와 후쿠시마의 정가운데 위치한 '미토'라는 도시에서 레지던스 작가로 머무르던 중 매일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맹인 안마사 시라토리(白鳥) 씨를 만났던 것. 그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 기기를 켜 보았다. “완전 장님 같지 않나요? 일본에서 만난 시라토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도시에서 정작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원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봐야 하는 것으로 일상을 기록한다는 것. 그 관계 설정이 이 오클러스 리프트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한 거죠.” 크레용팝과 '지옥의 문', 순식간에 냉탕과 온탕을 오간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전시의 제목이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임을 떠올려보면, 그리 억지스러운 연결은 아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인간, 공허함을 열정으로 잠재워버리는 인간, 그리고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 이 전시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정연두의 인간과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정연두라는 작가를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그가 다루는 '꿈과 현실' '진짜와 가짜' '진지함과 유머'의 황금비가 꼭 우리 인생을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연두가 누구인가. 그는 맨 처음, 미술로 개인의 꿈을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알려진 작가다.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이 남극 탐험 대원이 되고 주유소 알바가 천천히 F1에서 우승하는 카레이서로 변하는 디졸브 화면을 바라보며 느꼈던 짜릿한 전복감('내 사랑 지니', 2001), 아이들이 스케치북 위에 옮긴 꿈이 실제가 됐을 때의 환희('원더랜드', 2003)! 그의 작품은 속임수임을 알면서도 한바탕 웃고 마는 '미술쇼'의 카타르시스 같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상의 전복을 공모하듯 그의 작품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에게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 '드림위버' 같은 별명이 따라다녔으니, 그만큼 그의 어법은 신선하고 강렬했다.

“예전 대안 공간 루프에서 '내 사랑 지니' 작업을 처음 전시할 때, 방명록에 한 여자가 '작가님께서 꿈을 실현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썼었는데 누군가가 거기 줄을 짝 짝 긁고 '사진을 통해서밖에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잘 보고 갑니다'라고 써놓은 걸 봤어요 저는 그 방명록이 굉장히 기뻐요.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작품이 다루고 있는 건 '꿈' 그 자체라기보다 매일매일 타인과 스쳐 지나가며 생겨나는 매 순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 작품은



◀ 명품 브랜드의 점원들을 건조한 시선으로 담아낸 '도쿄 브랜드 시티'(2002).
▼ 획일화된 아파트 섬에 살고 있는 서른두 가정을 찍은 작품 '상록타워'(2001).



▲ 오로지 걸그룹 크레용팝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 '크레용팝 스페셜'(2014). 무대 곁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팝저씨'들이 모여 진행했던 퍼포먼스 영상이 상영된다.



▲ 로댕의 '지옥의 문'에 대한 정연두식 재해석, '베르길리우스의 통로'(2014). 오콜러스 리프트라는 3D 기기를 쓰면, 실사로 살아 움직이는 현대인의 초상을 목도할 수 있다.



보는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진과 다큐멘터리, 설치로 다양하게 변주를 거듭했을 뿐, 결국 이 전시장에 흠뻑 젖어 버린 이야기들은 그가 누군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기록에 다름 아니다. 생각해보자. 그의 작품엔 그가 다녔던 곳, 만난 사람, 본 것들이 놀랍도록 고스란하지 않은가. 도쿄의 명품 브랜드 매장 직원들을 건조한 시선으로 촬영한 '도쿄 브랜드 시티'(2002), 같은 공간 다른 삶을 보여주는 '상록타워'(2001), 뉴욕의 이민자들의 거주지를 교묘하게 한 화면에 이어 붙인 '식스 포인트'(2010)까지 작품 제목만으로도 그의 동선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일상적 주제에 천착하는 걸까. 그는 오히려 반문했다. “과거에는 사회가 예술가들이 기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예술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행동으로 다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당착에 빠져서 소멸되기 너무 쉽기도 하고요. 저는 특별히 일상에 주목해서 모티브를 얻는다고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고, 관계를 통해서 얻는 감수성이나 에너지가 작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죽음 앞에 경건해진 인간군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현대인들의 공허함처럼 작품 속에서 도시와 그 속의 사람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게 그의 작품은 블록버스터라기보단 일상을 늘여지도록 지루하게 다루는 일본 영화, 혹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뽑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더 닮았다. 전시장에 걸린 그의 초기작 '영웅'(1998)이 그의 말을 대변한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달린다는 상상을 하며 매일을 달리는 철가방, 그 사진을 지나면 벌집 같은 아파트

에서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삶을 꾸리는 가족들을 담은 '상록타워'(2001)에 닿는다. 아, 이토록 먹먹하고 눈물겨운 자화상이라니!

고백하건대, 정연두가 들려준 이야기 중 그가 어떤 작가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던 대목은 정작 엉뚱한 데 있었다. 그가 일본에서 만났던 맹인 안마사 시라토리 씨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이 매달 저에게 32기가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대부분의 사진이 자기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 길을 울여름에 미술사 이은결 씨하고 같이 가서 다시 걸으면서 작품을 만들 예정이에요. 시라토리 씨가 건넌 길목길목마다 오케스트라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올가을 일본에서 열릴 개인전의 7개 방 중 마지막 방에 배치될 거예요. 마냥 낙관의 측면은 아니지만, 이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가로서 '축제'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동네 약사나 방역차를 줄줄 따라다니던 아련한 추억처럼, 상상만으로도 이 얼마나 근사한 장면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산책의 뒤꽂무니에 서고 싶을 만큼! 어쩌면, 그가 작가로서 가장 순수한 행복감을 느끼는 때도 바로 그 장면 뒤에 카메라를 들고 섰을 때가 아닐까. 작품에 흐르는 따뜻한 온도마저도 촌스럽거나 경계해야 할 무엇이 되고 만 '컨템퍼러리 아트'의 세계에서 정연두의 예외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절곡, 그 갈피의 웃음과 눈물이 한 편의 인간극장처럼 예술로 펼쳐지고 또 우뚝해지는 것을 보는 건, 그리 쉬운 경험이 아니기에. [E]

editor 박지혜 photographer 김춘호 cooperation 삼성미술관 플라토(1577-7595)

*정연두 작가의 6년 만의 대규모 개인전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는 3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린다.